

"코로나가 드러낸 한국 교회의 민낯, 정직하게 마주하고 아프게 성찰하다."

#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연속토론회 시즌1

2021년 4월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 3주차 -

## 빛나간 종말론에 근거한 열정,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신앙

강성호

(안양일심교회 부목사,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외래 교수)

### 1. 한국교회의 종말론 이해의 한 측면과 코로나19 국면에서의 그 여파

최근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사회 일반 대중에게 종교기관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를 정밀하게 구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천지 발 집단감염과 BTJ 열방센터 발 집단감염이 전혀 성격이 다른 사건이라는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설득력 있게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이 개신교 선교단체로서 2000년도 이후 한국교회의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개신교회가 BTJ 열방센터 발 집단감염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는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돼 노예가 된다'는 주장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인 의심과 불

신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콥의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과 백신에 대한 최바울 선교사의 이해가 그들의 신학과 종말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터콥만의 종말론 이해로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올바른 대응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콥은 여러 교단에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과 그릇된 성경 해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인터콥의 'Back To Jerusalem'(백투예루살렘) 운동이었습니다. 백투예루살렘운동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서진해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다시 아시아로 이동한 후 중동 이슬람권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까지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사상에 기반 한 운동입니다. 문자적 성경해석을 바탕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에 복음이 다시 전해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인터콥의 선교의 열정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한 그들의 열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교의 열정이 그들의 성경 해석과 종말론 이해까지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잘못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는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웃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종말론 이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 2.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종말론에 근거한 선교의 열정의 사례

선교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현대 선교운동을 이끈 말씀이었습니다. 종말의 표적을 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적인 시대의 표적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인 복음 전파”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종말론은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한국교회 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주제는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였습니다. 선교의 긴박성을 인식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와 헌신을 촉구한 이 주제는 원래 학생자원선교운동의 구호였습니다. 무디의 혈문산 학생대회 때 로버트 윌더(Robert P. Wilder) 선교사는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시작된 운동이 학생자원선교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사대회를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라는 주제는 전천년주의 종말론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토

입니다. 전천년주의 종말론의 기본 이해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긴박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종말론에 따르면, 세계복음화는 매우 절박하고 긴급한 일이 됩니다. 1910년 세계선교사대회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수많은 나라로 파송하였습니다. 이 대회에 한국 대표로 사무엘 모펏과 제임스 게일이 참석하였는데, 그들 역시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전천년주의 종말론이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복음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끝을 오게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알려 주는 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이 세계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많은 결실을 맺었지만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까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백투예루살렘 운동, 코로나19 백신 음모론 등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특정 단체의 잘못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종말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움직여가는 중요한 서사가 종말론에 근거한 선교의 열정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빛나간 열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교회됨을 실천하는 교회

기독교성품윤리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저는 한국교회의 종말론 이해와 선교의 열정이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의 성품을 형성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대적이고 세상의 다른 어떤 일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선교 명령의 절대성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너무 쉽게 무시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품윤리에서 서사 또는 이야기는 한 공동체의 가치와 덕을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공동체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전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성품은 그 공동체의 서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한 공동체 안에 여러 개의 서사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생존 방식, 삶의 체계, 가치관, 타인들과의 관계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성품을 결정짓는 서사는 성경의 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서사가 교회 공동체의 성품을 결정짓는 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헥터의 용기는 그리스 도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시키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웃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과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맞서 싸우는 용기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일리아드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를 지탱시키고 유지시킨 중요한 덕목들을 담고 있는 서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서사는 그 사회가 생존하고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주인공의 성품이 그 사회가 본받을 성품으로 제시되며 그 서사의 주인공이 타인과 가족과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의 성품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윤리 또는 도덕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선택의 문제로 제한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내면의 성숙과 도덕 발달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도덕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현대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선택을 실천해야 할 "자아"와 도덕적 선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론적으로 명백하게 밝힌다고 해도, 우리가 모두 도덕적 선택을 실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 선택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도덕적 성품이라고 부르며, 기독교적 성품윤리는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선택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강조할 때, 우리는 성품 발달이 우리의 실천적 행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덕적 성품의 형성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습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때 성품의 형성하기 위해서 성품을 함양하고 습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를 노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형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품윤리가 지닌 약점 중 하나인데, 순환론적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성품의 형성이 필요하고, 그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은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 순환론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 덕을 함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 서사는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도덕적 공동체로서 성도들은 교회공동체의 서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

스의 교회 윤리는 덕윤리와 서사신학을 연결시키고 통합합니다. 그는 기독교 사회 윤리, 공동체적 미덕은 교회가 성경적 서사에 충실하고 성경적 서사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서사는 단순히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덕을 함양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덕을 갖춘 성도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의 성품윤리에 따르면, 교회는 인격의 공동체 또는 미덕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미덕의 학교가 되어서 가르치는 덕과 성품은 그 교회의 지배적인 서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서사가 잘못된 성경해석에 기반 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서사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예수님의 서사에 충실하지 않은 교회의 도덕적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충실하게 본받는 성품의 훈련장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 결론

선교라는 주님의 절대적 명령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무례하게 행하고 생명의 위협을 끼치는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인들의 내면에서 종말론과 선교의 열정을 절대시하는 서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서사에 의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성품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기독교 사회 윤리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적 미덕은 교회가 성경적 서사에 충실하고 성경적 서사의 미덕을 실천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서사는 단순히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덕을 갖춘 성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sup>기실</sup>

##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연속토론회 시즌1

코로나가 드러낸 교회와 신앙의 민낯,  
정직하게 마주하고 아프게 성찰하다.

3주차

2021년 4월 19일 (월) 오후 7~9시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www.youtube.com/giyunsil](http://www.youtube.com/giyunsil)

- 빛나간 종말론에 근거한 열정,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신앙 -

“ 잘못된 종말론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한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 강성호 (안영일심교회 부목사, 고신대학원 기독교윤리 외래교수)

LIVE ISSUE 코로나19 '3차 대유행'

# 상주 BTJ열방센터발 감염 전국 확산 속 방문 은폐까지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방역기간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물의를 빚었던 선교 수련시설 'BTJ열방센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최근 전국적으로 속출하는데다, 센터 방문사실을 감추는 확진자도 많아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

 중앙일보

## 집단감염 '인터콥' 최바울의 설교 "백신 맞으면 노예 된다" - 중앙일보

"빌게이츠 백신 맞으면 DNA 조작 가능". 이처럼 BTJ 열방센터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인터콥 선교회의 대표 역할을 해온 최바울 선교사에게도 ...

Jan 13, 2021



 매일신문

## 인터콥 선교회 최바울 "빌게이츠 백신 맞으면 DNA 조작 가능"

그들의 노예가 된다"며 "빌 게이츠 등 특정 세력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트렸다"고 주장했다.(지난해 6월 설교에서는 "가격이 더 ...

Jan 13, 2021



 뉴스앤조이

## 아프간 선교부터 코로나19 백신 음모론까지...공격적·극단적 선교가 낳은 인터콥의 그림자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인터콥선교회(최바울 대표)가 운영하는 상주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월 14일 중앙 ...

Jan 14, 2021

NEWS&JOY

 연합뉴스

## 코로나 확산고리된 'BTJ열방센터'...대표 선교사 음모론 논란

BTJ는 'Back To Jerusalem'(백 투 예루살렘), 'Back to Jesus(백 투 지저스)'의 영어 약자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1월 27~28일 집회가 ...

Jan 11, 2021



 크리스찬 투데이

## “최바울의 백투예루살렘은 그릇된 선교종말론”

최바울 씨와 인터콥의 백투예루살렘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건설하실 종말의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선교운동이다. 최바울 씨는 ...

Aug 29, 2018



 중앙일보

## "백신 맞으면 노예된다" 음모론...350명 죽음의 숨바꼭질 - 중앙일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터콥이 근간으로 삼는 종교 이념은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이라는 종말론적 복음주의다. 인터콥이 수련회관 또는 ...

Jan 11, 2021



Back to Jerusalem

# 백투예루살렘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교회 속의 왜곡된 종말 사상과 선교 운동

한국 교회의 종말 사상이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은 다른 어떤 백투예루살렘 운동보다, 오히려 그보다 이전인 1970년대 초부터이다.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의 백투예루살렘 운동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의 백투예루살렘 운동은,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백투예루살렘 운동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백투예루살렘 운동이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로 수많은 백투예루살렘 운동이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로 수많은 백투예루살렘 운동이 한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 이 필찬



- 유대인 귀환 운동은 과연 성경적인가? • 제3성전의 회복은 과연 재림의 신호인가?
- 혈통적 유대인은 과연 모두 구원받을 것인가?

종말론적인 색채를 띠며 한국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백투예루살렘 운동! 그러나 지금은 백투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바이블이 절실히 필요한 때!

김성태(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박영돈(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유해무(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정현구(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조병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강력 추천!!

새문길몰리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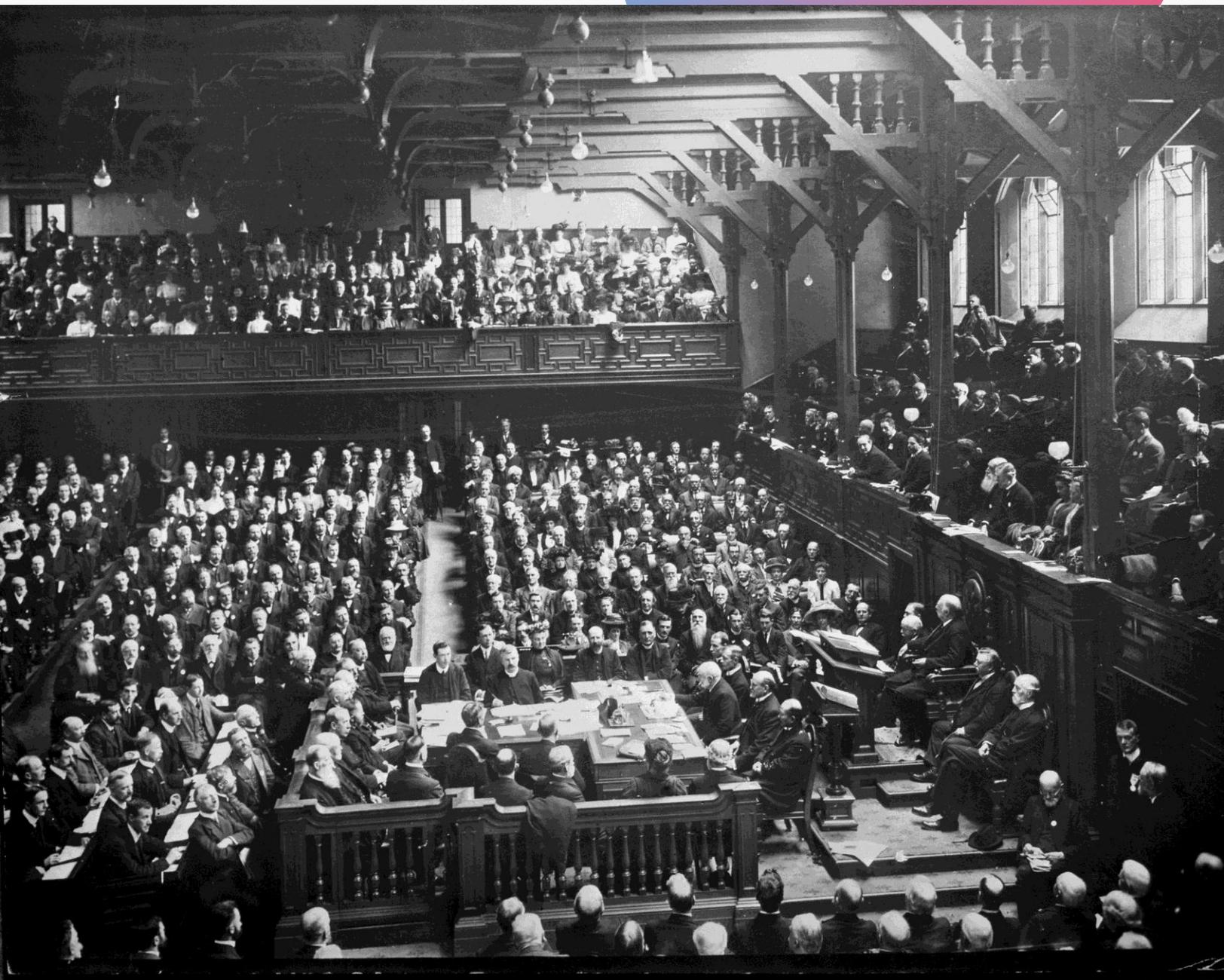
- 마태복음 24: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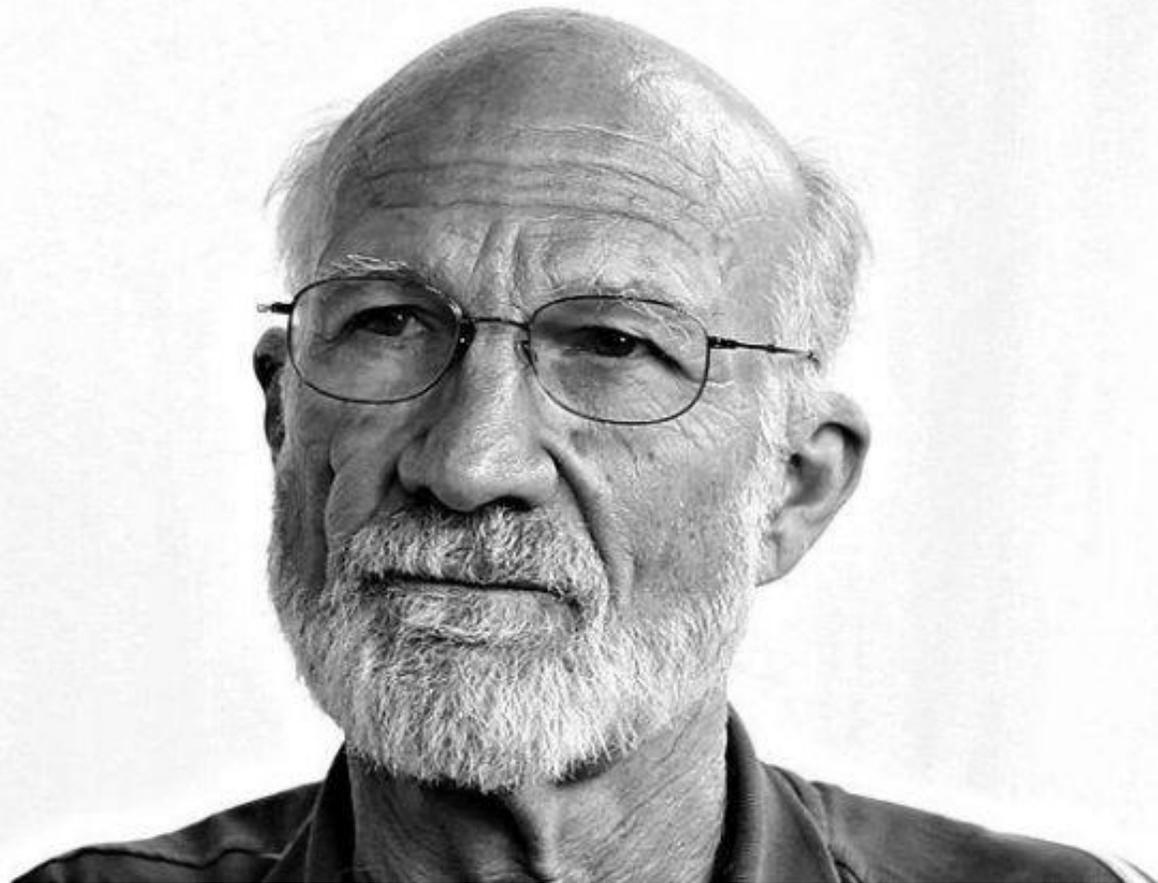
# 1886년 무디의 헐몬산 학생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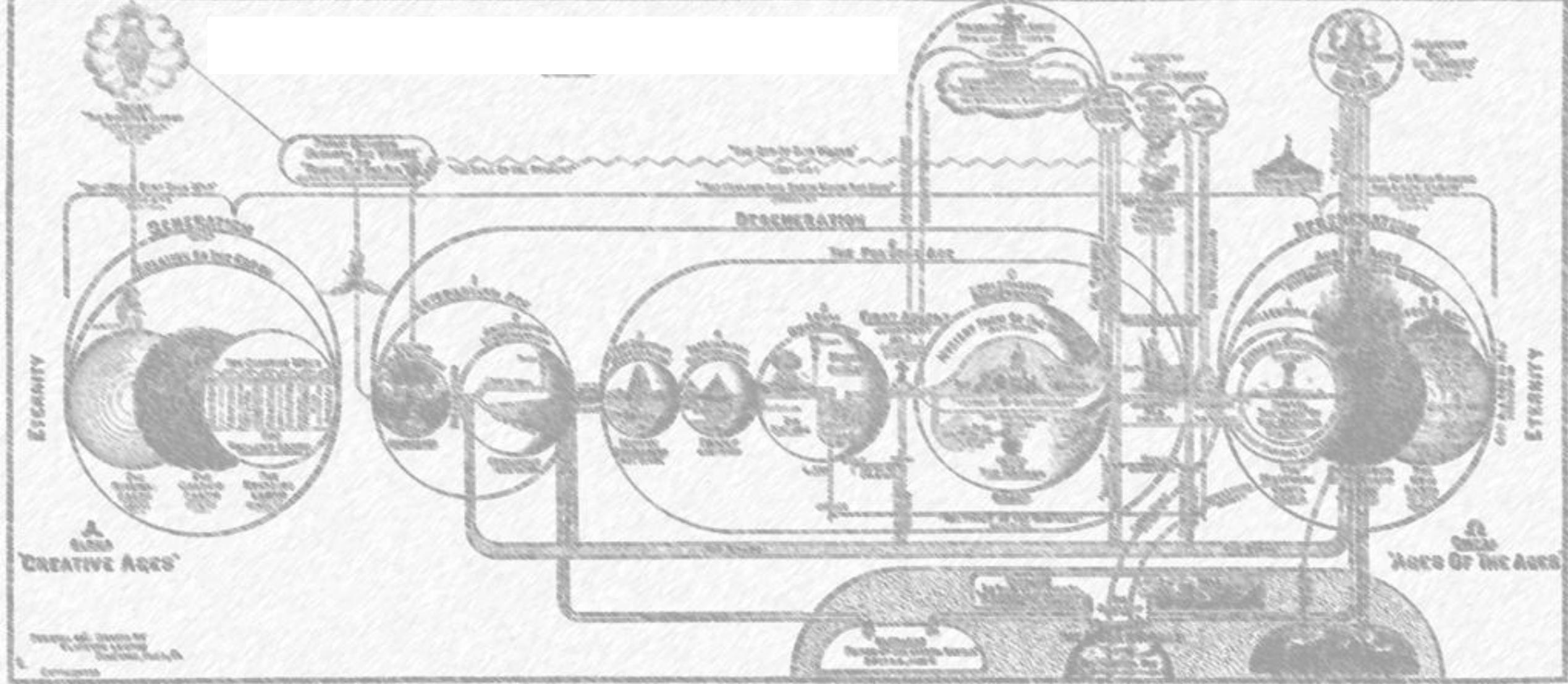
#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성품윤리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상응하는 성품이 형성되어야만  
알수 있는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러티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러티브에 따른 성품의  
형성은 공동체와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충실히 구현되는 사회, 즉  
내러티브의 사회가 있어야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A community of character)



종말론 해석이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

# 01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

- ✓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미래주의적 해석에 근거한다.
- ✓ 천년 간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지상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한다.
- ✓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며 가시적인 재림에 의해 격변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 성도들은 첫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는 반면, 악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 부활한다고 해석
- ✓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휴거가 대환난 전에 있어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석

## 02 세대주의의 긍정적 기여

교회	▶ 초기 선교 활동에 있어서 교회 확장에 기여
성경	▶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게 함
구원	▶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다는 구원론에 기여
재림	▶ 재림에 대한 기대와 종말론적 신앙

## 03 세대주의와 교회공동체

- ① 개인 그리고 교회공동체를 휴거적 관점에서 구분한다.
- ② 심판의 대상자를 정의하려 한다.
- ③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려 한다.
- ④ 교회와 교회 밖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특징을 지닌다.
- 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휴거가 대환난 전에 있어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석

## 04 세대주의와 교회공동체

- ① 개인 그리고 교회공동체를 휴거적 관점에서 구분한다.
- ② 심판의 대상자를 정의하려 한다.
- ③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려 한다.
- ④ 교회와 교회 밖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특징을 지닌다.
- 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휴거가 대환난 전에 있어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석

## 05 세대주의와 코로나 대응



세계적 전염병을 재림의 전조 징조로 파악한다.



코로나 방역정국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적대세력의 음모로 이해한다.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그들의 노예가 된다



전염병 뒤에 배후 세력이 있고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QR코드를 찍는 것인 짐승의 인을 맞는 것이다.



코로나에 대적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방역에 협조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타협주의자들로 비난한다.

## 06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

- ☑ 종말론적 신앙은 건강하다.
- ☑ 종말론적 신앙은 자신의 신앙에 더 엄격해야 한다.
- ☑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 ☑ 교회 세상을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닌 이타적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 ☑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